

유기면(Organic Cotton) (3)

- 유기농 양모 -

미국에서는 오가닉 코튼을 사용하여 제품화 하더라도 제품 생산과정에서 미량의 화학성분이 섞일 가능성이 있어, 제 3의 인증기관인 그린 크로스(Green Cross)가 입회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기농 제품에 관하여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검증하고 있다. 일본에는 “일본 오가닉코튼유통기구”(Nihon Organic Cotton Marketing Organization : NOC)와 “일본 오가닉코튼협회”(Japan Organic Cotton Organization : JOCA)가 있는데, JOCA는 독자 기준을 GOTS 기준으로 전환 중이고, NOC는 독자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가령 NOC는 인증된 오가닉 코튼을 사용한 실, 천, 2차 제품에 대해 각 단계별로 화학약품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생산 및 제품의 판매까지를 책임지는 특정 비영리법인이다. 이 기관에서 다루는 오가닉 코튼은 인도산 중심의 인증기관인 “바이오인스펙터”(스위스)가 인증한 실을 수입하고 있다.

이 유기농 면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일본에서는 1993년부터 유아용의 내의 제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기농 면제품은 면화 재배에서부터 방적, 제직, 가공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화학약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엔 일반 면제품과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상품 한 점 한 점에 공공기관에 의한 완전한 인증이 끝나고 인증 태그가 붙어 있다.

이 오가닉 코튼의 생산관리는 창설 이래 “생산자의 양심”을 엄격히 지키는 생산 판매 행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 제품을 보증하는 레이블 대금은 NOC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장 당 12엔이며, 이중 2엔은 아프리카 우물 파기운동 기금으로 할당하고 있다.

유기농 면화에 자극을 받은 호주의 목장에서는 “유기농 양모” (Organic Wool)의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목장에서 약물을 주지 않고 기른 양의 털을 말한다. 이 양모는 호주정부의 공식 인증기관인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이제 막 시작 된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기대된다.

유기농 면화가 되었든, 유기농 양모가 되었든 환경 친화적인 자연회기예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이 생산자들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공석봉)

